광양서 급식사고 땐 52km 떨어진 구례서 처리

교육지원청 개편 혼란만 가중

전남, 보건 급식·시설·전산 거점별 통합운영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전남도내 일부 지역에서 교육행정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교육지원청의 보건 급식·시설·전산 분야의 관리 권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통합운영키로 했지만 되레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전남지역 22개 지역 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돼 기존 지역교육청의 업무 가운데 종합감사는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이 수행해온 고교에 대한 장학과 시설관리, 보건·급식, 전산업무 등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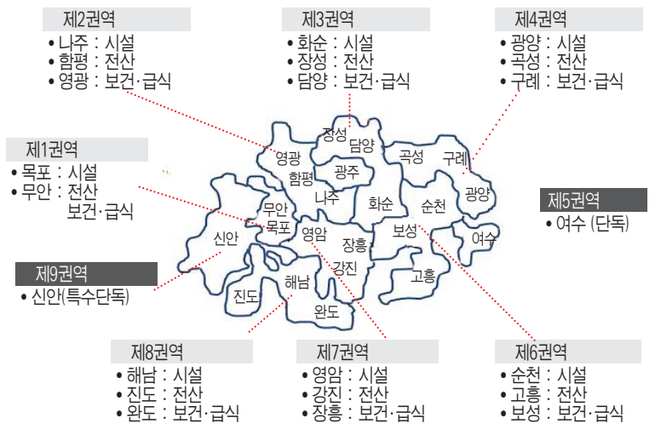
특히 전남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을 9개 권역으로 묶어 시설·전산·보건 급식 등을 '권역별 기능 거점 교육청'에서 분산해 맡도록 했다.

권역별 구성은 ▲1권역 목포(시설), 무안(전산, 보건·급식) ▲2권역 나주(시설), 함평(전산), 영광(보건·급식) ▲3권역 화순(시설), 장성(전산), 담양(보건·급식) ▲4권역 광양(시설), 곡성(전산), 구례(보건·급식) ▲5권역 여수(단독) ▲6권역 순천(시설), 고흥(전산), 보성(보건·급식) ▲7권역 영암(시설), 강진(전산), 장흥(보건·급식) ▲8권역 해남(시설), 진도(전산), 완도(보건·급식) ▲9권역 신안(섬지역 특성상 단독) 등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이같은 '권역별 기능 거점청' 운영방식 때문에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예로 4권역인 광양의 학교에서 식중독 등 보건·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52km 떨어진 구례교육지원청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보건소와 구례교육지원청과의 신속한 업무협조 등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허가를 비롯한 교육시설 설치·관리 등 각종 업무에서도 해당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빠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 22개 지역 교육청 권역별 기능



무안과 2권역에 포함된 목포의 교육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57억원, 노후 급식기구 1억6000만원, 학기 중 급식지원 2억원 등 올해에만 61억원의 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급식을 무안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업무의 혼선이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한 교육공무원은 "인구와 학교가 밀집된 도시에 걸맞는 정책이지, 전남처럼 소규모 학교가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농산어촌 지역에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교과부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광주천 알몸 도주극

30대 노숙자 학림교 아래서 목욕하다

아침운동 주민 신고…40분간 체포 소동

광주천에서 목욕을 하던 30대 노숙자가 아침운동을 하던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40여분간 '알몸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노숙자 임모(31)씨가 광주시 동구 학동 학림교 아래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초께. 임씨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자신이 살던 남구 월산동의 집이 너무 덥다고 생각했다.

임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던 터라 노숙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임씨는 다리 밑에 돗자리를 깐 뒤 이불 등을 집에서 가져와 '거주'했고, 가끔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다.

3개월여의 노숙생활을 하면서 문득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을 한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께 주변을 살핀 후 목욕을 위해 알몸이 됐다.

하지만 학림교 아래 하천은 얕아 얼굴을 씻자마자 흙탕물이 일었다. 임씨는 조금 더 깊은 곳을 찾기 위해 학림교에서 150m 가량을 내려갔고, 이 모습이 아침운동을 나온 주민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다급한 나머지 무릎 깊이의 광주천을 가로지르며 40분 가량을 알몸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알몸 상태인 임씨가 양쪽에서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임씨는 광주동부경찰에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없는 아침 시간에 목욕을 하려던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운찬 〈8113〉 김종두

데이트족 강도·성폭행

북부경찰, 40대 2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6일 인적이 드문 농로에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남·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정모(44)씨 등 2명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6월 20일 새벽 0시5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농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던 유모(29)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아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씨의 양손을 끈으로 결박, 트렁크에 가둔 뒤 유씨의 여자친구를 인근 숲 속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초 이들이 저지른 4건의 범행 중 1건에 대해 또 다른 용의자 이모(40)씨 등 2명을 붙잡은 뒤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졸속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나이·인상착의 등 피해자 진술과 이들의 차량 안에서 전깃줄과 흉기 등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영장을 기각, 이씨 등은 구속을 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은 6일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주홍(58) 강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군수와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4명 가운데 김모(57·5급)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최모(여·54·6급)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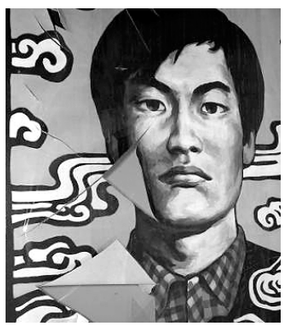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이한열 영정 경찰이 찢었다?

광주비엔날레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전달 파장

재단, 출판물 교체 검토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이한열 영정은 경찰이 찢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각종 출판물에 게재해 구설수에 올랐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관 제3전시실에 전시중인 최병수의 작품 '찢겨진 이한열 영정 사진' 영문 도록의 해설서에 "이한열 영정은 '서울경찰'(공권력·힘있는 조직체)이 파괴했다'(it was quickly attacked and destroyed by seoul police forces)고 표기했다. 또 전시해설서에는 '경찰로 의심되는 이에 의해 칼로 잘려져나가고 말았다'고 적혀 있으며 도슨트심화교육서에도 '경찰로 의심되는 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87년 6월 항쟁 때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광주출신)씨의 장례식에 쓴 영정사진이 1988년 누군가에 의해 찢겨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작가 최병수씨가 그해 다시 그린 두 번째 영정이다.

당시 이 영정 역시 누군가에 의해 칼로 갈기갈기 찢겼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수씨는 "영정을 찢은 사람을 잡지 못했는데 잘못된 사실을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막전 재단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제8회광주비엔날레(3일~11월7일)의 도록 6000부와 전시해설서 8000부를 제작, 일부 배포·판매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영문 도록의 'Police forces'는 경찰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림을 훼손했을지도 모르는 힘을 가진 이들을 말한 것"이라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며, 텍스트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6일 이들 출판물 교체 작업에 나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환절기…신종플루 예방접종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6일 광주 북구 보건소 직원이 시민들에게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베크 남녀 노리는 '현대판 산적'

도심 외곽 강도 잇따라 … 경찰 '관할 떠넘기기'

광주 도심 외곽에 현대판 산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주로 범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데이트를 즐기는 이른바 '아베크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경찰서 간 관할권 다툼 소지가 있는 구(區)간 경계지역 인근 도로의 경우 이들이 더욱 자주 출몰한다. 이들이 이러한 장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범행 장소는 주로 북구 오룡동·용두동 등이다. 이곳은 북구와 광산구의 구(區)간 경계지역이다.

이 지역의 관할은 북부경찰이지만, 파출소는 광산경찰 쪽이 더 가깝다. 북구 오룡동 치촌마을에서 광산경찰서 첨단파출소 간 거리는 3.5㎞. 관할인 북부경찰서 건국파출소(5.8㎞)에 비해 2.3㎞나 가까운 거리다.

강도들의 입장에선 관할 파출소의 거리도 먼 데다, 관할지역 문제로 경찰서 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도주시간을 충분을 벌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어서 순찰의 '사각'에 놓여있는 점도 범행이 속출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북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간혹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역이 아닌 경우 우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키스방'서 손님·주인 싸운 까닭은?

쌍나팔

○…30대 '키스방'손님이 환불 요구를 거절한 업주와 말싸움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박모(36)씨는 이날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4층 신모(38)씨가 운영하는 키스방에서 신씨와 서로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신씨의 키스방에서 요금을 지불한 뒤 키스를 하기 위해 들어온 여성의 입술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씨가 "다른 여성은 없다"고 말하자 환불을 요구.

○…경찰에서 박씨는 "입술에 상처가 있는 여성이 혹시 안 좋은 병이라도 있을까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신씨가 '1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